

유보통합을 위한 영유아교사 양성기관 개편의 쟁점1)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

2024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보면, 통합 영유아교원 자격·양성 개편의 방향은 통합교원 자격 마련인 바, 통합교원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요구, 대면 중심 학과 및 전공제로 양성 과정 운영,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기관 개편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 양성 요구에 부응하여 ‘영유아교원 양성교육 학과’로의 개편을 위한 관련 이슈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1. 들어가는 말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이 2022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포함되면서 정부는 이를 통해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였다. 그간 교육부 관할인 유치원과 보건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으로 이원화 되어 있던 유아교육과 보육 제도를 교육부로 일원화함으로써 질적으로 보다 수준 높은 교육과 보육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한 것이며, 이에 따라 2023년 7월에는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발표하고 동년 12월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교육부 일원화의 법적 근거를 갖추었다(대한민국정책브리핑, 2023.07.28; 한

국교육신문, 2023.12.10.).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직원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1년제 단기교육기관, 전문대학, 4년제 대학, 학점은행제 등에서 필수로 요구되는 학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하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유치원교사는 「유아교육법」에 따라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에서 유아교육과 또는 교직이수 유아교육전공 과정을 거치고 교육부 발행 ‘교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차이가 있었다.

2024년 6월 교육부가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을 보면, 통합 영유아교원 자격·양성 개편의 방향은 통합교원 자격을 마련하는 것이고, 통합교원은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 요구, 대면

1) 본 원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2024년도 수시과제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김은설, 강은진, 김근진, 김대욱, 신나리, 윤소정 저) 보고서의 일부를 인용, 재구성한 내용임.

중심 학과 및 전공제(주.비사법계)로 양성 과정 운영,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학과의 개편 과정에서 도출될 수 있는 어려움이나 운영의 장애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 근거에서 확인해내고 유보통합 교사 양성을 위해 가장 적절한 방식의 학과 개편 모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영유아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에서 영유아교사 양성 교육기관 개편에 관해 논의하고자 하며, 유보통합에 따른 영유아 교원 양성 요구에 부응하여 '영유아교원 양성교육 학과'로의 개편을 위한 관련 이슈를 여러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영유아 교사 양성 현황 및 개편의 방향

가. 현행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제도 및 현황

1) 유치원교사

유치원교사의 자격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르고 있는데, 자격을 신규로 처음 취득하게 되는 유치원교사는 정교사 2급으로, 이는 대학에 설치된 유아교육과 졸업자, 대학(전문대학 및 이와 동등 이상의 각종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전문대학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포함)졸업 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육과 교직학점을 취득한 자,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자, 유치원 준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

게 부여된다.

2023년 기준 전국 유아교육(학)과의 교원양성을 현황을 정원 규모로 살펴보면, 4년제 대학, 전문대 및 한국방송통신대 포함 총 140개교에서 연간 유치원 교사 8,339명을 양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 29개교 316명(2022년 통계)을 포함하면 총 8,655명으로 연간 약 8,700여명을 양성한다고 볼 수 있다.

2) 보육교사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1조를 따라 보육교사 3급, 보육교사 2급, 보육교사 1급, 원장으로 구분된다. 각 급별 보육교사 자격 기준을 보면, 보육교사 3급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보육교사 2급은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게 부여되고 있다.

보육교사의 양성 과정은 학과제가 아닌, 필수 학점 이수 형태의 학점제로 운영되고 있어서 정확한 양성인원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보육교사 양성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한국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평생교육시설(학점은행제)의 양성기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기준 대면교육 양성의 경우, 4년제 대학과 전문대 총 98개교에 보육교사자격 양성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보육교사 양성 인원을 자격 취득 통계로 살펴 보면, 2022년 보육교사 2급 자격 신규취득 현황은 24,385건이며 이중 유아교육(학)과에서 취득한 수 8,046건(교육부, 2023²⁾)을 제외하면 16,339건이다. 따라서 2022년 보육교사자격

〈표 1〉 2023년 유치원교사 및 보육교사 양성 기관 현황

지역	학과 수					지역	학과 수				
	보육 관련학과 ¹⁾		유아교육과		계		보육 관련학과 ¹⁾		유아교육과		계
	2·3년제	4년제	2·3년제	4년제			2·3년제	4년제	2·3년제	4년제	
서울	4	15	6	10	35	강원	0	0	3	4	7
부산	3	5	5	8	21	충북	0	5	3	4	12
대구	2	4	6	3	15	충남	0	7	1	7	15
인천	1	2	2	1	6	전북	2	4	4	2	12
광주	1	4	3	7	15	전남	2	4	3	3	12
대전	0	3	5	3	11	경북	2	2	7	4	15
울산	0	1	2	0	3	경남	2	2	4	6	14
세종	0	0	0	0	0	제주	0	1	2	1	4
경기	13	7	16	5	41	계	32	66	72	68	238

1) 학과명에 '아동' 또는 '보육'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임.
 자료: '고등교육통계'와 '보육통계'를 기준으로 작성

양성학과를 통해 연간 약 16,000여명이 양성되는 것으로 추계할 수 있다. 이 인원은 3급 자격자가 2급 자격을 취득한 수를 포함하고 있어서 실제 양성 인원은 이보다 적은 수일 것으로 추정된다³⁾(김은설 외, 2023).

나.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 양성 기관 현황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2, 3년제 전문대와 4년제 대학 관련학과 또는 전공에서 양성되고 있다. 각 양성기관(학과) 수를 보면 보육관련 학과는 전국에 전문대 34개, 4년제 69개가 있고 유아교육과의 경우는 전문대에 설치된 경우가 72개, 4년제는 71개로 비슷하다.

시·도별로 비교해보면, 경기와 서울 등 수도권에 보육 및 유아교육 관련 학과의 35.0%(전체 234개교 중 82개교)가 분포해 있음을 알 수

있고 세종이나 울산, 강원, 제주 등에는 양성기관 수가 적다.

다. 영유아 교사 양성 개편 방향: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교원의 양성 방향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관련하여 제시한 실행 계획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교육부가 2024년 6월 27일에 발표한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에는 통합 영유아교원의 자격·양성체계 개편에 관한 방향성이 제안되어 있다.

교원 양성과 관련하여서는, 영유아교사로서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학사 학위과정 및 대면 중심 학과·전공제(예, 영유아교육전공)로 하고 신규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할 예정이며 자유전공제, 마이크로디그리, 실습

2) 교육부(2023). 교원자격 발부 현황 자료.

3) 김은설, 문무경, 구자연, 권정윤, 이미정, 박소영, 김수현(2023).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교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학기제 도입을 통해 영유아교사 양성과정 혁신을 꾀하고자 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장 자격을 원감 자격 취득 수 3년 이상 경력자에서 부여하고 현직 교사는 특별교원 양성과정 또는 신편입학을 통해 통합교원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어린이집 원장 자격소지자를 대상으로는 자격 연수 과정을 운영하여 통합기관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교육부의 실행 계획은 통합교원의 양성과정을 현행과 개편안을 비교하여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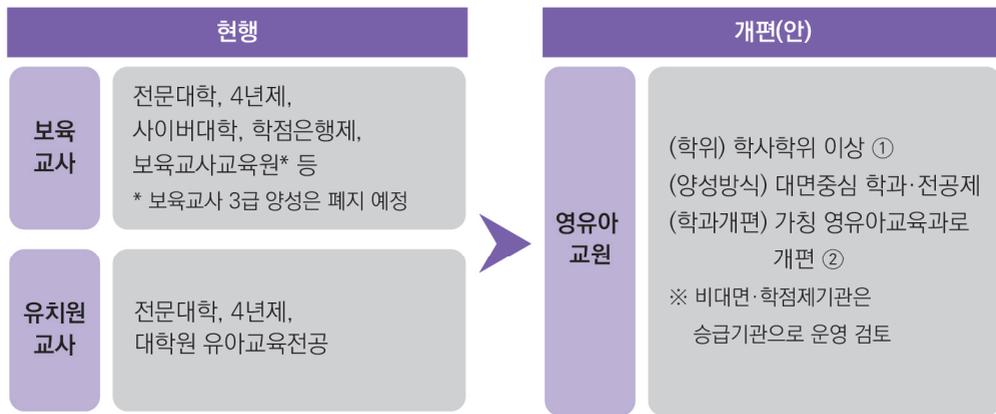
결과적으로, 교사 양성 제도와 관련하여 가장 큰 변화는 모든 교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 자격을 갖출 것, 통합교원 자격 부여는 대면중심 학교로 한정할 것, 학과는 가칭 영유아교육과로 명칭 일원화할 것 등으로 정리가 가능하다. 그러므로 모든 양성기관이 4년제 학사학위 수여 기관으로 변경할 때 고려되어야 할 점, 대면중심 학과 또는 전공제(기존 비사범계 보육교

사 양성 학과에 대해 통합교원 자격 부여 방안으로 교사를 양성할 때의 개선점 등을 중심으로 이후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3. 영유아교사 양성 기관 개편 관련 의견 수렴 결과

가. 양성기관 대표 단체 간담회

영유아교원 양성을 책임지고 있는 대학의 연합 협의체 대표 총 8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였다. 참여한 단체는 4년제 유아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4년제 보육교사양성대학교수협의회, 보육교사양성전문대학교수⁴⁾ 등이다. 아래에서는 각 쟁점별로 제시된 의견을 단체별(아래에서 ○로 표기)로 정리하였다.



- ① 전문대학에서도 영유아교사 학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50조의3) 개정
- ② 유아교육과와 아동보육 관련학과는 가칭영유아교육과로 개편을 원칙, 비사범 학과는 명칭 변경 없이 '영유아교육 전공'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양성정원은 별도 심사

[그림 1] 「유보통합 실행 계획(안)」의 유보통합 영유아교원 양성 개편 안

4) 보육교사 양성 전문대를 대표하는 단체는 구성되어 있지 않아, 전문대학 중 보육교사 양성규모가 큰 대표적 학교를 개별 섭외함.

1) 쟁점1: 양성과정 수업연한 4년 확장

• 전문대 유아교육과

전문대 유아교육과는 대부분 4년제로 개편하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학교의 재정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교수 채용, 정원 확정 등 4년제로 변경하는 기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이다. 협회 회원 중 소수는 학생 모집이 어려운 지역적 특색을 고려해서 3년제나 4년제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 전문대 보육학과

교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역량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4년제로의 전환에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기존 졸업생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배려할 필요가 있으므로 심화과정을 1년 이수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 쟁점2: 비대면 교육기관의 교원 양성기관 제외

• 전문대 유아교육과 및 전문대 보육학과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에서 발표된 대면 교육기관 학과 중심 교사 양성 안에 동의하며 비대면 기관은 배제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같이 제시하였다.

• 4년제 유아교육과

한국방송통신대학의 경우는 비대면 중심이지만 어느 정도 그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약 50명 정도로 양성인원을 제한하고 나머지는 재교육 정원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3) 쟁점3: 학과 중심 양성 및 학과 명칭

• 4년제 유아교육과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 향상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정부의 실행계획 안에서 제시한 영유아 교육을 전공하는 하나의 학과로 통합하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었다.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하지 않는 아동/보육 관련 학과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10%로 한정하고 더 확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통합 학과의 명칭 또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4년제 보육학과

영유아교육과로 통합, 전환하지 않는 기존의 아동/보육 관련 학과에 대해서는 교직 이수를 통해 교원 자격을 주는 비율을 현행 10%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하였다. 현재 제도에서는 졸업자 전원에게 보육교사 자격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를 10%만 주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결과이므로 해당 학과로 보아서는 너무 손실이 있는 변화라는 것이다.

나. 양성기관 관계자 설문 조사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모집단 376개 학교 중 137개 학교가 설문에 응하였다. 대학유형으로 보면 4년제 대학이 82개로 59.9%, 전문대가 55개 40.1%로 조사에 참여하였다. 응답을 한 교수들은 51.1%가 유아교육학과 학과장직을 맡고 있었고 19.0%는 보육교사 양성학과의 학과장이었다. 대학본부 보직자도 5.1% 포함되었다. 해당학과 근무경력 10년 미만인 경우가 45.3%로 가장 많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표 2〉 (전문대의) 4년제로 전환 의향 현황

단위: %, (명)

구분	전환 의향	비전환	모름	계
전체	70.9	7.3	21.8	100.0 (55)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6.2	4.8	19.0	100.0 (21)
강원, 충청권	50.0	12.5	37.5	100.0 (8)
영남권	70.6	5.9	23.5	100.0 (17)
호남, 제주권	77.8	11.1	11.1	100.0 (9)
학과/전공				
유아교육학과	75.0	6.8	18.2	100.0 (44)
보육교사양성 학과	66.7	16.7	16.7	100.0 (6)
대학본부/교직원	40.0	0.0	60.0	100.0 (5)
양성 교사 유형				
보육 교사 양성 대학	25.0	25.0	50.0	100.0 (4)
유치원 교사 양성 대학	78.6	0.0	21.4	100.0 (28)
유/보 모두 양성 대학	69.6	13.0	17.4	100.0 (23)

출처: 김은설 외(2024).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45

37.2%였다. 해당학과 근무 20년 이상 교수도 17.5% 포함되었다.

1) 학과 개편 의향

가) 전문대의 4년제 전환

전문대학의 경우 유보통합을 통해 교사 자격이 학사 학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면 학과를 4년제로 전환할 계획인지를 질문하였을 때, 응답자의 70.9%가 전환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수도권과 호남·제주권에서 전환을 예정한 비율이 높은 편이었고 보육교사양성학과보다는 유아교육학과의 경우 4년제 전환 계획 비율이 75.0%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보통합 교사를 양성하는 학과로 개편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보인(보육교사 양성 학과만 있는) 8개 대학의 경우 희망하는 방식은, 이 중 5개 대학이 교직이수를 통해 소수인원을 통합교

사로 양성하겠다는 운영 계획을 제시하였고 특히 4년제 대학은 7개대 중 5개 대에서 교직 운영을 희망하였다. 학과 개편을 하지 않겠다고 답한 전문대 1개 대학은 폐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통합교사를 양성하는 영유아교육과로 전환하지 않더라도 정원의 일부를 교직이수를 통해 통합교사로 양성할 수 있게 하겠다는 의향을 모두 갖고 있다고 하겠다.

나) 보육교사 양성 학과와 유아교육과가 모두 있는 대학의 경우

한 대학 내에 보육교사를 양성하는 학과와 유치원교사를 양성하는 학과가 모두 있는 경우는 사례 수가 52개였는데, 이들 학교에 대해 두 학과를 통합하여 유보통합 교사를 양성하는 하나의 학과로 개편할 의향이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에 대해 38.5%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어 모

〈표 3〉 (보육교사양성학과 유치원교사 양성학과 병존 시) 통합하여 일원화 개편 의향

단위: %, (명)

구분	개편 할 예정	개편하지 않을 예정	모름	계
전체	46.2	15.4	38.5	100.0 (52)
대학 유형				
4년제	36.7	20.0	43.3	100.0 (30)
전문대	59.1	9.1	31.8	100.0 (22)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61.1	16.7	22.2	100.0 (18)
강원, 충청권	37.5	25.0	37.5	100.0 (8)
영남권	28.6	7.1	64.3	100.0 (14)
호남, 제주권	50.0	16.7	33.3	100.0 (12)

출처: 김은설 외(2024).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48-49.

르겠다는 의견으로 모아졌지만 46.2%의 학교는 두 학과를 통합할 예정인 것으로 응답하였고 15.4%는 개편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4년제 대학의 경우는 20.0%가 개편하지 않겠다고 응답하고 개편하겠다고 응답한 경우는 36.7%여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전문대학의 경우는 9% 정도만이 개편하지 않겠다고 하였고 59% 이상이 개편하겠다고 하여 전문대는 학과 통합을 예상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2) 학과 명칭 전환

유보통합을 통해 양성되는 영유아 교사를 교육하는 학과의 명칭을 ‘영유아교육(학)과’로 정하는 것에 대해 74.8%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5.2%는 반대의 의사를 보였다. 특히 4년제 대학에서 반대가 30.1%로 전문대 1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도권이나 호남·제주 권역 대학에서 해당 명칭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보육교사 양성학과 및 유치원교사 양성학과 간에는 응답 차이 없이 비슷한 의견을 보이고 있었다.

4. 영유아교사 양성 학과 개편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

가. 양성 학과 유형

1) 학과 명칭: ‘영유아교육과’

앞서 제시된 양성대학 관계자 간담회와 설문조사 결과를 참조하여 영유아 교사 양성을 위한 통합학과의 명칭을 영유아교육과로 제안하고자 한다. 영유아교육과로의 전환 대상이 가능한 학과는 현재 유치원교사 또는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학과이며, 학교의 전환 의사에 따라 가능하다. 원칙적으로 영유아교육과로 명칭 전환된 학과 졸업자에 대해 영유아 교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2) 아동/보육 관련학과의 교직 이수

현재 보육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아동/보육 관련학과에 대해 영유아교사 자격을 위한 교직 이수 운영을 검토할 수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아동/보육 관련학과에서 보육교사 자격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희망 학생에게 보육교사 자격을 100%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통합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일반대학 교직과정을 통한 영유아교사 배출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교직이수의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대학 간담회 결과에서 보듯이 상호 다른 입장과 의견을 보여주고 있다.

나. 수업연한: 4년제로의 상향

영유아교사 자격 기준으로 적정 수업 연한은 4년이라는 데에 전문가 및 양성대학 대표 관련자들이 본 연구 및 선행 의견 조사와 공개 포럼

등에서 다수 동의한 바가 있었다⁵⁾. 이렇게 수립된 의견에 의거하여 4년제로 상향 통합 조정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수업연한을 4년으로 상향 조정하는 또 다른 근거로서는 선행연구가 보여주는 영유아 교사 교육 4년 수업이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효과의 중요성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교사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 4년의 수업 기간이 요구된다는 입장이다. 예비교사는 전공과목과 교직과목만을 이수하는 것이 아닌 교과와 비교과활동을 통해 높은 수준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증진시켜 나가므로 이를 위한 충분한 기간이 필요하다. 김지영 등(2021)⁶⁾은 예비교사는 비교과 활동을 통해 교사로서의 생각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다고 하였으며, 정영근(2013)⁷⁾은 예비교사

〈표 4〉 유보통합 이후 영유아 담당 교사 양성 학과 명칭 “영유아교육과”

단위: %, (명)

구분	동의	반대	계(수)
전체	74.8	25.2	100.0 (123)
대학 유형			
4년제	69.9	30.1	100.0 (73)
전문대	82.0	18.0	100.0 (50)
권역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72.9	27.1	100.0 (48)
강원, 충청권	60.0	40.0	100.0 (25)
영남권	80.6	19.4	100.0 (31)
호남, 제주권	89.5	10.5	100.0 (19)
학과/전공			
유아교육학과	73.1	26.9	100.0 (78)
보육교사양성 학과	76.9	23.1	100.0 (39)
대학본부/교직원	83.3	16.7	100.0 (6)

출처: 김은설 외(2024). 영유아교원 양성학과 운영 개선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p.51-52.

5) 본 연구의 간담회, 면담조사 뿐 아니라 선행연구(김은설 외, 2023: 전제서)에 따르면, 한국아동학회, 한국유아교육학회 등 대부분 관련 학회와 단체에서 4년제 학과 중심 방안에 동의 의견을 제시함.

6) 김지영, 윤진주(2021). 그림책 중심의 비교과 교육과정 적용 이후 나타난 예비유아교사의 그림책에 대한 생각의 변화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10(2), 119-137.

양성과정에서 교양과목이 직업교육의 측면이 강조된 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므로 교사가 직업적 성숙함을 갖추기 위해서는 '교양교육 기반의 전문지식'이 필요하고 '교육학적 사유능력'을 갖추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교육자로서의 인성 함양 교육 기간으로서의 필요성이다. 장영환(2018)⁸⁾은 사범대 4학년 학생이 1학년에 비해 교직인성 중 윤리의식이 유의미하게 높았음을 보여주고, 예비교사들이 지속적으로 다양한 교수경험을 갖도록 함으로써 교직인성을 함양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즉, 예비교사들은 4년의 수학 연한을 통해 단순히 전공지식과 교직소양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 교직인성, 윤리의식, 미래의 삶에 대한 준비와 같은 폭넓고 깊이있는 교사로서 성장해나갈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은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초-중등과의 교육 연계성 유지를 위한 측면에서 4년 학위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교육대학과 중등교사 양성기관인 사범대학에서는 4년의 학사학위 과정을 통해 전공 및 교직 필수 72~75학점(교육부 기준은 72학점) 이상에 더하여 학교에 따라 45~50학점 이상의 전공 심화, 교양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학기당 약 18학점씩 수강 학점 제한을 두기도 하여 4년간의 수학과 학사학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영유아교육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이를 위한 교사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할 때 영유아교육에서도 4년 학위과정으로 개편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계열성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영유아교사 양성이 이루어지고 영유아-초-중등 교

사의 교육 계열성이 갖추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김대옥, 2024)⁹⁾.

다. 대면중심 교육 강화

정부의 유보통합 실행계획(안)에서 제시되었고, 양성기관 간담회나 선행연구(김은설 외, 2023: 전제서) 등에서 여러 단체가 동의하였던 영유아교사 양성을 위한 대면중심 교육 필요성 요구에 따라 대면중심으로 양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현재 유치원교사 양성은 전문대학, 4년제 일반대학 등 대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나 1,800명이 넘는 전공학과 학생 수를 가진 한국방송통신대학이 비대면 중심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어 대면과 비대면이 같이 포함되는 양태이다. 보육교사의 경우에도 평생교육원 등을 통한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 등 비대면 중심 원격 교육기관에서도 양성되고 있어 대면기관 졸업자와 동등하게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학자들은 영유아를 교육하는 교사들의 양성과정은 교육 대상의 특성과 그들을 대하는 교사로서의 역할을 고려할 때 대면교육이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해 왔다(신혜원, 2024)¹⁰⁾.

유보통합을 통해 영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과 동일한 계열성을 가진 교육체계로서 기능하기 위해서 대면 중심 교사양성 교육과정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방향성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비대면교육 방식으로도 양성되고 있는 교육 체제는 대면교육 교육기관 중심 양성 방식으로 변화가 필요하다. 대표적 비대면 양성 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과 사이버

7) 정영근(2013). 한국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양 교육에 대한 성찰과 미래 방향. 한국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63차 학술대회 자료집, 203-228.

8) 장영환(2018). 성별, 학년, 교수경험에 따른 예비과학교사의 교직인성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5), 785-797.

9) 김대옥(2023). 유보통합을 위한 0~5세 영유아교사 자격과 영유아교육과 중심 양성체제, 그리고 기존 교원의 영유아교사 자격 부여 방안. 열린유아교육연구, 28(3), 1-27.

10) 신혜원(2024). "교사양성과정이 왜 대면교육이 되어야 하는가?" 유보통합 정책 공동토론회: 유아교사 전문성 확보를 위한 3대 쟁점. 발제문

대학, 학점은행제 등의 향후 역할과 기능의 전환
혹은 보완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